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의 잠재적 편향요인: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을 중심으로*

최 문 영 이 동 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는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개인특성이나 평가조건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반응편향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08명의 남녀 중학생을 설문지 지시문을 통해 조작된 4가지 평가조건(익명/기명 실시 및 참조시간 2조건)에 무선할당하고, 개인특성 변인(적대적 귀인편향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 괴롭힘 참여역할(가해, 피해, 동조, 방관, 방어)을 자기보고식 도구를 통해 평가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이 괴롭힘 자기보고에 편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개인특성 변인은 모든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평가조건 변인은 가해, 피해, 동조 역할의 보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모든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개인특성 변인에 추가하여 평가조건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이들은 가해 및 피해 보고에 대한 설명력을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시킨 반면, 주변인 역할의 자기보고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괴롭힘 자기보고의 반응편향의 관점에 해석하였으며,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식 평가, 반응편향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길 63번길 2

Tel : 051-510-2638, E-mail : lepsy@pusan.ac.kr

괴롭힘(bullying)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주고자 의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격행동의 한 형태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Olweus, 1993). 이러한 괴롭힘 관련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 관찰, 교사보고, 또래보고, 자기보고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느 행동의 평가에서처럼 괴롭힘 평가도 '중다장면, 중다방법, 중다정보원'에 기초한 다차원적 평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동형, 2014a; Crothers & Levinson, 2004). 그러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실태조사나 괴롭힘 연구 등에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편리성과 경제성 장점으로 인하여 자기보고식 평가방법이 널리 사용된다(Sveinsson & Morris, 2007). 괴롭힘의 자기보고식 평가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의 질문지(surveys)나 심리척도(scales)가 활용되고 있다. 전자는 괴롭힘 관련 경험의 여부나 빈도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lweus Bullying Questionnaire(OBQ; Olweus, 2007)가 대표적인 예이며, 국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이러한 질문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반면 심리척도 방식은 괴롭힘이나 관련 경험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경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나 경험 정도의 연속 측정치를 얻는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국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Crick & Grotpeter, 1996)나 Reynolds Bully Victimization Scales(Reynolds, 2003),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괴롭힘 관련 심리척도들(김현주, 2003; 서미정, 2008; 최보가, 임지영,

1999; 최은숙, 1999)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괴롭힘의 자기보고식 평가는 편리성과 경제성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도를 위협하는 편향의 가능성이 많아 괴롭힘 평가 분야에서 많은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의 개관연구(이동형, 2014a)에 따르면, 이러한 쟁점들은 괴롭힘 핵심요소의 조작화, 하위유형의 조작화, 단일문항 대 다문항 설문구성, 응답자 반응특성, 실시 맥락과 절차, 공유방법분산 문제의 6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으며, 각 쟁점은 괴롭힘 및 학교폭력 평가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괴롭힘 측정결과에 잠재적 오류와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변인들이 워낙 다양하여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쟁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척도들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으며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언어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Smith, Cowie, Oafsson & Liefoghe, 2002)가 보고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국의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괴롭힘의 자기보고식 평가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괴롭힘 측정방법과 도구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 결과의 잠재적 편향요인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각종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에서 괴롭힘에 직접 참여한 경험, 즉 가해 및 피해경

힘이 주요 관심 변인이기도 하거니와 괴롭힘 현상의 본질을 밝히려는 전통적인 연구들이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온 것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점차 괴롭힘이 발생하는 맥락적, 생태학적 변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늘고 있고(이승연, 2013),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bystander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괴롭힘 참여역할(participant roles in bullying)은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으로(Salmivalli, Lagerspectz, Brjo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6), 이는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 및 피해 당사자 외에 주변인으로 지칭되는 주위의 학생들이 괴롭힘 상황에 다양한 역할(동조, 방관, 방어)을 통해 괴롭힘 역동에 참여하므로 주변인에 대한 이해가 괴롭힘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괴롭힘을 단순히 가해자-피해자의 이차관계 문제가 아닌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역동적, 사회적 관계의 문제(Swearer, Espelage, & Napolitano, 2009/2011)로 본다면, 괴롭힘 또한 참여역할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선행연구들이 주로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의 자기보고 결과를 편향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주변인 역할(동조, 방관, 방어)을 포함시켜 모든 괴롭힘 참여경험의 자기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참여역할의 관점에서 가해, 피해, 동조, 방관, 방어를 포함하는 참여경험의 자기보고 결과를 편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6가지 범주의 요인들(이동형, 2014a) 중 응답자의 반응 특성(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관련 변인(즉, 실시 맥락과 절차)에 해당하는 변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들이 참여역할 자기보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특성 변인으로 적대적 귀인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타인의 행동이나 동기를 적대적, 의도적인 것으로 왜곡해서 귀인하는 인지적 편향(Quiggle, Panak, & Dodge, 1992)으로, 이지현(2006)은 적대적 귀인편향이 공격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가해와 피해경험이 순환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2009)의 연구에서도 가해 및 피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귀인편향이 실제 괴롭힘 경험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험의 보고를 편향시키는지는 쟁점이 되어왔다. 예컨대, Greif와 Furlong(2006)은 괴롭힘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도성' 요소의 적절한 조작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기보고식 평가에서 흔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등의 문구를 통해서 괴롭힘 행동을 기술하고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응답자의 반응이 가해자의 실제 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적대적 귀인편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적대적 의도가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의도적,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피해경험을 편향(과잉)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은 모호한 상대방의 행동을 보다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공격적인 방식의 문제해결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공격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또래관계에서 비교적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 등을 보다 적대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과잉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 Bovaird(2010)는 학생들이 괴롭힘 참여경험의 자기보고를 위해 떠올리는 자전적 기억이 오류에 취약하며 본질적으로 재구성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대적 귀인편향이 목격자 경험 보고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정보 처리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귀인편향은 괴롭힘 상황의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고 일부 재해석하여 보고하는 데에도 편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귀인편향이 피해경험의 자기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참여역할의 보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귀인편향과 함께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를 편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다. 자기보고식 평가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좋은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심리적 태세인 사회적 바람직성은 주로 자기보고식 성격검사 등에 포함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항에 반응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요인(Anastasi & Urbina, 1997)으로써, 이는 측정결과의 타당도를 낮추는 주된 가외변인으로 간주된다.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초해 반응할 때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러하다(Nederof, 1985).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와 관련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지만, 폭력이나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솔직한 자기보고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

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Bell & Naugle, 2007; Sugarman & Hoatling, 1997)가 보고된 바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 학령후기 아동이 보고하는 친사회적 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이은정, 2015)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괴롭힘 참여역할이 사회적으로 선호(예: 방어)되거나 비선호(예: 가해, 피해, 동조, 방관)되는 특성이 매우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바람직성은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도 편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개인특성 이외에 자기보고식 괴롭힘 측정 시 평가자가 정하는 여러 가지 평가조건이나 절차는 괴롭힘 경험의 자기보고에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형, 2014a; Cornell & Cole, 2012). 전형적인 자기보고식 괴롭힘 실태조사는 응답자의 솔직한 보고를 돕기 위해 통상적으로 익명(anonymity)으로 실시되며, 이러한 익명조건의 검사절차가 대체로 권장되기도 한다(Olweus, 2010; Solberg & Olweus, 2003). 현재 국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익명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실시되는 조사결과는 외적 준거에 의한 사후 타당도 평가가 불가능하며, 불성실한 응답 등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이동형, 2014a; Cornell & Cole, 2012).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기명방식으로 실시하되 비밀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익명 실시보다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Chan, Myron, & Crawshaw, 2005; O'Malley, Johnston, Bachman & Schulenberg, 2000).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Chan 등(2005)은 설문지를 익명 혹은 기명으로 실시하는 두 조건에 학생들을 무선행당하여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조사

하였는데, 각 조건간 보고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사하게, 괴롭힘의 자기보고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O'Malle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약물사용과 절도를 포함한 범법행위 등 보고에 민감한 내용을 익명대 비밀보장 조건 하에 측정하였는데, 그 보고 비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익명으로 괴롭힘 참여경험을 조사할 때 더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명조건에서도 학생들의 신뢰로운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익명 조사에 대한 대안으로 비밀보장의 기명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는 익명과 기명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국내의 실증연구가 없어서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괴롭힘 경험의 자기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흔히 무시돼 온 평가조건 변인 중 하나가 참조시간(time frames of reference)이다. 이는 자기보고식 괴롭힘 척도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시간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OBQ(Olweus, 2007)는 '지난 2~3개월'을 사용하며, 국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육부(2014) 조사의 경우 '지난 6개월'을,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을 사용하는 등 통일되지 않는 참조시간이 사용되고 있다. 먼 과거의 경험(예: 지난 1년간) 보다는 최근의 경험(예: 최근 1달간)을 묻는 방식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주장(Furlong, Sharkey, Felix, Tanigawa, & Green, 2010)이 있지만, 최근 경험을 묻는 경우 비교적 사소한 괴롭힘 피해경험의 회상이 늘어 오히려 과잉보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Morrison & Furlong, 2002)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참조시간을 찾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참조시간이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회상하여 보고해야 하는 괴롭힘 자기보고의 특성 상 통일되지 않은 참조시간의 사용은 괴롭힘 경험 보고율의 잠재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참조시간이 괴롭힘 참여경험 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괴롭힘 평가 관련 주제는 외국의 괴롭힘 관련 연구문헌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도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괴롭힘 측정방법들 간의 차이를 비교한 소수의 연구들(신유림, 2006; 정태연, 김인경, 김은정, 2001; 최지영, 2008)에 국한될 뿐 괴롭힘 평가의 잠재적 편향요인으로서 개인특성이나 평가조건 변인의 영향을 직접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괴롭힘 연구에서 자주 연구되는 연령대인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괴롭힘 참여경험 자기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되, 국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개인특성 변인으로서 사회적 바람직성 및 적대적 귀인편향, 평가조건 변인으로서 익명/기명 실시 및 참조시간의 네 변인이 괴롭힘 참여경험의 자기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미정(2008)이 개발하여 현재 국내의 괴롭힘 참여역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를 사용하여 괴롭힘 가해 및 피해뿐 아니라

동조, 방관, 방어경험 보고에 대한 이들 변인의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김은아, 이승연, 2011; 심희옥, 2008; 오인수, 2010;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Gini, Pozzoli, Horghi, & Franzoni, 2008; Salmivalli et al., 1996)이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된 괴롭힘 참여경험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성별의 효과를 먼저 통제 후 차례로 개인특성 변인과 평가조건 변인의 기여도를 검증할 것이다. 개인특성 변인은 괴롭힘 참여자역할 자기보고시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이므로 2단계에서 투입될 것이며, 평가조건 변인은 평가 상황에서 연구자에 의해 조작되는 상황 변인이므로 3단계에서 투입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바람직성, 적대적 귀인편향, 익명/기명실시, 참조시간과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성별의 효과를 통제 후 개인특성 변인(사회적 바람직성, 적대적 귀인편향)과 평가조건 변인(익명/기명실시, 참조시간)은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의 자기보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3. 성별의 효과를 통제 후 개인특성 변인과 평가조건 변인은 괴롭힘 주변인 역할(동조, 방관, 방어)의 자기보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경남지역에 소재한 5

개 중학교의 남·여 학생 7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동계방학 전 약 2~3주(12월 초순~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 총 785부의 설문조사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중요한 개인 확인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58명의 자료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들 58명은 본 연구의 목적 상 '기명실시'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확인정보(학년, 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학생들로 기명실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708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431명(60.9%), 여학생은 277명(39.1%)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365명(남 203명/여 161명, 51.6%), 3학년 172명(남 137명/여 35명, 24.3%), 1학년 171명(남 91명/여 79명, 24.2%)으로 분포되었다.

연구절차

총 708명의 대상자들은 평가조건 변인(익명/기명실시, 참조시간)에 따라 네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전체 대상자들 중 대략 절반은 익명조건에, 나머지 절반은 기명조건에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에서 다시 절반은 '지난 2-3개월' 참조시간 조건에, 나머지 절반은 '지난 1년' 참조시간 조건에 할당되었다. 각 해당조건별로 분석에 포함된 최종 대상자수는 익명/1년 조건이 195명, 익명/2-3개월 조건이 186명, 기명/1년 조건이 167명, 기명/2-3개월 조건이 160명이었다.

각 조건에 배정된 대상자들은 적대적 귀인 편향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 및 사후질문 순으로 구성된 설문지

를 받았으나, 4가지 조작조건에 따라 지시문에서만 차이가 있는 설문지를 제시받았다. 즉 각 대상자는 자신이 무선배정된 조건에 따라 익명/기명실시와 참조시간의 조건이 결합된 네 유형의 설문지 중 한 가지 유형을 제시받았다.

평가조건 변인의 조작

각 평가 조건은 다음과 같은 지시문의 차이를 통해 조작되었다. 익명 혹은 기명조건은 설문지 표지에 몇 문구를 넣음으로서 조작되었다. 익명조건의 설문지에는 표지에 성별과 학년만을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이어 “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기명조건의 설문지는 성별과 학년을 기입하는 것 외에 응답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학번 정보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내용은 다른 친구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설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제시되어 보고내용을 교사가 확인 가능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참조시간은 괴롭힘 참여경험을 보고할 때 참조하는 시간틀로서, ‘지난 1년’ 혹은 ‘지난 2-3개월’의 두 조건을 괴롭힘 참여역할 참여척도의 지시문을 통해 조작하였다. 즉 괴롭힘 참여자 역할척도의 문항이 제시되기 직전에 “지난 1년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지난 2-3개월을 떠올려 보세요.”라는 지시문을 굵고 큰 글자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문항이 제시될 때도 이 부분을 밑줄로 강조함으로써 학

생들이 해당 참조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기명실시의 적절한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말미에 사후 질문을 제시하였다. 사후질문은 비밀노출의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묻는 내용을 담은, “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이 선생님에게 알려질 것이라 생각하나요?(1번)”와 “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이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이라 생각하나요(2번)?”의 두 문항, 그리고 “이 설문지에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나요?”(3번)라는 보조질문이 포함되었다. 1번과 2번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 상에 평정(1점: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5점: 틀림없이 알려질 것이다)하도록 구성되었다. 지시문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도대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1번 문항의 경우 익명조건의 대상자들에 비해 기명조건의 대상자들이 비밀노출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해야 하며, 2번 문항의 경우 두 조건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통계검증 결과, 1번 문항에서는 익명조건($M=3.12$, $SD=1.27$)에 비해 기명조건($M=3.38$, $SD=1.16$)의 대상자들이 비밀노출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84$, $p<.01$), 2번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 n.s.). 따라서 익명/기명실시의 조작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도구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

괴롭힘 참여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Salmivalli 등(1996)의 참여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에 기초하여 서미정(2008)이 새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서미정(2008)은 PRQ의 조력자와 강화자를 하나로 묶어,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의 다섯 가지 역할을 측정하는 32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해와 피해자 하위척도의 경우 각 문항별로 '전혀 없다', '1-2회', '3-6회', '7-10회', '11회 이상'까지 0~4점의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며 이 두 하위척도는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주변인 역할에 해당하는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하위척도의 경우 동일하게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할의 괴롭힘 참여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각 참여역할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 ~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해 $\alpha=.79$, 피해 $\alpha=.82$, 동조 $\alpha=.82$, 방관 $\alpha=.93$, 방어 $\alpha=.88$, 전체는 $\alpha=.83$ 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귀인편향 척도

적대적 귀인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Crick(1995)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가설적 상황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김은경(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우선화가 날 수 있는 상황 혹은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가설적 상황들을 10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내가 학교의 복도에 서 있는데 우리 반 애들 두 명이 내 옆을 지나갔다. 그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서로 뭐라고 속삭이며 웃었다'와 같은 상황들로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읽고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4점 Likert형 척도에 응답하게 된다. 보기는 '절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

다(1점)'에서 '분명 일부러 그런 것 같다(4점)'까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모호한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은경(2008)이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3$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Stober(2001)의 Social Desirability Scale-17(SDS-17)을 김용석(2010)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DS-17은 '나는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 '나는 빌린 물건을 최소한 한번은 되돌려 주지 않은 적이 있다' 등 바람직하지 않으나 누구나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기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1점)' 혹은 '아니요(0점)'로 응답하게 된다. 김용석(2010)은 '약물중독'과 같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 하나를 제외하고 번안하였고 한국판 SDS-17의 C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SDS-17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에 비하여 정신병리의 측정과 거리가 멀고 문항 내용도 현대적이어서(Blake et al., 2006),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였다. 다만 일부 문항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내용과 몇몇 한자어를 중학생에게 보다 친숙한 내용과 한글어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원 척도의 '인정하고...'를 '받아들이고...', '교통체증을 '급식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할 때', '상한 감정을 '나쁜 감정', '위기를 '어려움', '논쟁'을 '말다툼'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9$ 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각 경험 보고와 적대적 귀인,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준거변인(가해, 피해, 동조, 방관, 방어)에 대한 개인특성 변인과 평가조건 변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1단계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우선 고려한 후, 2단계에서 개인특성 변인과 3단계에 평가조건 변인을 각각 투입하여 설명력 증가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한편, 유목 변수인 성별과 평가조건 변인들의 경우 더미 변수 코딩방식에 따라(남자: 1, 여자: 0, 익명: 1, 기명: 0, 1년: 1, 2-3개월: 0) 코딩하여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성차분석 결과

각 변인의 기술통계, 상관분석과 성차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각 참여역할 보고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해와 동조경험을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가해 $t=4.65, p<.001, d=.36$; 피해 $t=2.98, p<.01, d=.23$), 다른 참여역할의 경우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적대적 귀인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 p<.01, d=-.17$).

적대적 귀인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포함하는 개인특성은 모든 참여역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대적 귀인편향은 가해, 피해, 동조, 방관과는 대체로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r=.13 \sim .20, p<.01$)을 방어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3, p<.01$)을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은 가해, 피해, 동조, 방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4 \sim -.40, p<.01$)을 방어($r=.24,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평가조건 요인은 일부 참여역할과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익명/기명실시는 피해 및 동조와 각각 $r=.09(p<.05)$ 의 상관을 보여 익명에서 피해나 동조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조시간 조건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보고할 경우 가해($r=.12, p<.01$)와 피해경험($r=.09, p<.05$)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이 괴롭힘 참여역할 보고에 미치는 영향

우선 변인 간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였다. 이는 1.84~1.98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이 위계적 회귀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모두 0.1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 또한 1.0~1.06으로써 본 모형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1에서는 고정된 인구특성학적 변인인 성별이 더미변수의 형태(여자: 0, 남자:1)로 투입되었다. 모형2에는 피검자의 검사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적대적 귀인편향,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들이 투입되었다. 마치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성차분석 결과(N=708)

변인	개인특성		평가조건		참여역할						
	1	2	3	4	5	6	7	8	9		
<u>개인특성</u>											
1. 적대적 귀인편향		-.22**	.01	.02	.15**	.20**	.13**	.20**	-.13**		
2. 사회적 바람직성			-.04	-.05	-.40**	-.26**	-.24**	-.27**	.24**		
<u>평가조건</u>											
3. 익명/기명실시				.00	.05	.09*	.09*	.02	-.01		
4. 참조시간					.12**	.09*	.03	.04	.01		
<u>참여역할</u>											
5. 가해						.60**	.30**	.10**	-.13**		
6. 피해							.22**	.14**	-.06		
7. 동조								.31**	-.06		
8. 방관									-.35**		
9. 방어											
성별	남(n=431)	M	2.32	0.59	-	-	1.77	1.52	1.94	2.33	2.90
		SD	0.56	0.20	-	-	0.70	0.71	0.72	0.86	0.83
	여(n=277)	M	2.41	0.60	-	-	1.53	1.49	1.78	2.38	2.96
		SD	0.52	0.19	-	-	0.57	0.60	0.63	0.84	0.72
	<i>t</i>	-2.26*	-.82			4.65***	0.64	2.98**	-0.72	-1.03	
전체	M	2.36	0.60	-	-	1.67	1.51	1.88	2.35	2.93	
	SD	0.54	0.20	-	-	0.66	0.67	0.69	0.85	0.79	

$p^* < .05$, $p^{**} < .01$, $p^{***} < .001$

주. 평가조건의 더미변수 코딩: 익명은 1, 기명은 0, 지난1년은 1, 지난2-3개월은 0으로 각각 코딩되었음. 평가조건 변수들과 다른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양분점(point biserial) 상관계수임.

막으로 모형3에는 익명/기명실시 및 참조시간, 곧 피검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조건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준거변인은 5가지 참여역할인데, 직접적 참여경험에 해당하는 가해와 피해 경험 보고와 주변인 역할에 해당하는 동조, 방관, 방어경험 보고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보고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이 가해 및 피해를 포함하는 괴롭힘 참여경험 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성별이 포함된 모형

표 2. 개인특성과 평가조건 변인이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 보고에 미치는 영향(N=708)

모형 및 변인	가해			피해		
	B	SE B	β	B	SE B	β
모형1						
성별	0.24	0.05	.17***	0.03	0.05	.02
모형2						
성별	0.23	0.05	.17***	0.04	0.05	.03
적대적 귀인편향	0.11	0.04	.09*	0.19	0.05	.16***
사회적 바람직성	-1.2	0.12	-.37***	-0.78	0.13	-.23***
모형3						
성별	0.23	0.05	.17***	0.05	0.05	.03
적대적 귀인편향	0.10	0.04	.09*	0.19	0.05	.16***
사회적 바람직성	-1.22	0.12	-.37***	-0.75	0.13	-.22***
익명/기명실시	0.06	0.05	.05	0.11	0.05	.08*
참조시간	0.13	0.05	.10**	0.10	0.05	.07*

주 1. 가해 모형1: $R^2=.03^{***}$, 모형2: $\Delta R^2=.17^{***}$, 모형3: $\Delta R^2=.01^{**}$

주 2. 피해 모형1: $R^2=.00$, 모형2: $\Delta R^2=.09^{***}$, 모형3: $\Delta R^2=.01^*$

$p^* < .05$, $p^{**} < .01$, $p^{***} < .001$

1은 가해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21.23$, $R^2=.03$, $p<.001$). 개인특성 변인인 적대적 귀인 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모형2) 가해경험 보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Delta R^2=.17$, $p<.001$), 적대적 귀인편향($\beta=.09$, $t=2.43$, $p<.05$)과 사회적 바람직성($\beta=-.37$, $t=-10.5$, $p<.001$) 모두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다. 평가조건 관련 변인들이 추가 투입되었을 때 준거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Delta R^2=.01$, $p<.01$), 그 크기는 개인특성 변인에 비해 낮았으며, 참조 시간만이 가해경험 보고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고($\beta=.10$, $t=2.78$, $p<.01$), 익명/기명 실시는 가해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경험 보고를 살펴보면, 성별이 포함된 모형1은 피해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아 남녀의 차이는 피해경험을 보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개인특성 요인이 포함된 모형2는 피해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는데($F=23.00$, $\Delta R^2=.09$, $p<.01$), 적대적 귀인편향($\beta=.16$, $t=4.11$, $p<.01$)과 사회적 바람직성($\beta=-.23$, $t=-6.10$, $p<.01$) 두 변인 모두 피해경험 보고에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다. 끝으로 평가 조건 변인이 투입됨 따라(모형 3) 피해경험 보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가해와 마찬가지로 그 크기는 매우 작았으며

($\Delta R^2=.01, p<.05$), 익명/기명실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나($\beta=.08, t=2.18, p<.05$) 참조시간은 피해경험 보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 변인이 가해 및 피해경험 보고의 잠재적인 반응편향 요인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편향의 가능성은 가해 경험 보고의 경우 가장 큼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조건 변인들은 가해와 피해경험 보고에 대한 설명량을 약 1% 증가시키는데 그쳐 잠재적 편향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함을 시사한다.

괴롭힘 동조, 방관, 방어경험 보고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이 동조, 방관,

방어를 포함하는 괴롭힘의 주변인 역할경험 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동조경험 보고의 경우 성별이 동조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F=8.74, p<.01$). 개인특성 요인이 추가 투입된 모형2도 추가로 7.0%의 설명력을 가져 동조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Delta R^2=.07, p<.001$), 적대적 귀인편향($\beta=.09, t=2.49, p<.01$)과 사회적 바람직성($\beta=-.22, t=-5.88, p<.001$) 모두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조건 변인들이 투입되었을 때(모형3), 동조경험 보고에 대한 설명력은 더 이상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방관경험 보고의 경우, 성별이 투

표 3.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이 괴롭힘 동조, 방관, 방어 경험 보고에 미치는 영향(N=708)

모형 및 변인	동조			방관			방어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u>모형1</u>									
성별	0.16	0.05	.11**	-0.05	0.07	-0.3	-0.06	0.06	-.04
<u>모형2</u>									
성별	0.16	0.05	.11**	-0.04	0.06	-.02	-0.06	0.06	-.04
적대적 귀인편향	0.12	0.05	.09*	0.23	0.06	.15***	-0.12	0.06	-.08*
사회적 바람직성	-0.76	0.13	-.22***	-1.02	0.16	-.24***	0.88	0.15	.22***
<u>모형3</u>									
성별	0.17	0.05	.12**	-0.04	0.06	-.02	-0.06	0.06	-.04
적대적 귀인편향	0.12	0.05	.10*	0.23	0.06	.15***	-0.12	0.06	-.08*
사회적 바람직성	-0.74	0.13	-.21***	-1.02	0.16	-.24***	0.89	0.15	.22***
익명/기명실시	0.12	0.05	.08*	0.01	0.06	.01	-0.01	0.06	-.01
참조시간	0.02	0.05	.02	0.04	0.06	.02	0.04	0.06	.02

주 1. 동조 모형1: $R^2=.01^{**}$, 모형2: $\Delta R^2=.07^{***}$, 모형3: $\Delta R^2=.01$

주 2. 방관 모형1: $R^2=.00$, 모형2: $\Delta R^2=.09^{***}$, 모형3: $\Delta R^2=.00$

주 3. 방어 모형1: $R^2=.00$, 모형2: $\Delta R^2=.06^{***}$, 모형3: $\Delta R^2=.00$

* $p<.05$, ** $p<.01$, *** $p<.001$

입된 모형1은 방관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개인특성 요인이 추가 투입된 모형2는 방관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F=23.93$, $\Delta R^2=.09$, $p<.001$), 적대적 귀인편향($\beta=.15$, $t=3.98$, $p<.001$)과 사회적 바람직성($\beta=-.24$, $t=-6.36$, $p<.001$)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평가조건이 추가로 포함될 때(모형3),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익명/기명 실시 조건과 참조시간 조건 모두 방관경험에 대한 고유의 설명력이 없었다.

끝으로 방어경험 보고를 살펴보면, 성별이 투입된 모형1은 방어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나, 개인특성 요인이 추가 투입된 모형2는 방어경험 보고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F=15.82$, $\Delta R^2=.06$, $p<.001$), 사회적 바람직성($\beta=.22$, $t=5.81$, $p<.001$)과 적대적 귀인편향($\beta=-.08$, $t=-2.15$, $p<.05$) 모두 방어경험 보고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이 있었다. 동조 및 방관경험 보고와 마찬가지로 평가조건 변인이 3단계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익명/기명 실시와 참조시간 모두 방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 변인들이 주변인 역할보고에 대한 설명력을 6%~9% 증가시킴으로써 잠재적 반응편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평가조건 변인들은 주변인 역할보고에서 편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의 자기보고식 평가에서 반응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의 영향을 가해나 피해뿐 아니

라 괴롭힘 참여역할의 관점에서 주변인 역할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을, 평가조건 변인으로 익명/기명 실시와 참조시간을 고려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변인 중 적대적 귀인편향은 가해 및 피해경험과 낮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적대적 귀인편향이 많을수록 가해 및 피해경험을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괴롭힘 가해 및 피해 보고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송경희 등, 2009; 이지현, 2006)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해석하였듯이 적대적 귀인편향이 괴롭힘 가해와 같은 공격행동을 증가시키거나 피해경험을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안적인 해석도 가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은 적의가 없는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피해경험의 과잉보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Greif & Furlong, 2006), 괴롭힘 관련 직접 및 간접적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적대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관련 경험을 과잉보고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Bovaird, 2010). 이와 같은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적대적 귀인편향은 가해나 피해뿐 아니라 목격자 경험, 즉 괴롭힘 상황에서 보인 자신의 주변인 행동의 자기보고과도 관련성을 보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은 동조, 방관과도 비슷한 크기의 정적 상관, 방어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 적대적 귀인편향이 모든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즉 적대적 귀인편향이 가해나 피해뿐 아니라 목격자 경험, 즉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인 행동의 자기보고와도 비슷한 정도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은 이러한 대안적 해석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적 귀인편향과 괴롭힘 참여행동 간 유의한 관계가 실제적인 것인지, 자기보고의 반응편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해석이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괴롭힘 참여역할 평가에 대한 다방법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괴롭힘 참여역할을 다른 양식의 평가방법(예: 또래보고, 교사보고, 직접관찰 등)을 통해 측정하여 자기보고로 측정한 적대적 귀인편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은 가해경험 보고와는 중간정도(-.40)의 상관을, 다른 참여역할 보고와는 다소 낮지만 유사한 크기의 상관(-.26 ~ -.24)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이 다양한 참여역할의 자기보고 결과를 일관되게 편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인특성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모든 편향요인 중에서 모든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 걸쳐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가해경험 보고 간의 상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은 주변인 역할에 비해 괴롭힘 가해경험의 보고가 사회적으로 보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모든 괴롭힘 참여역할과의 유의한 상관은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자기보고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Bell & Naugle, 2007; Sugarman & Hoatling, 1997)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익명/기명 실시가 사회적 바람

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익명/기명 조건에 할당된 학생들 간에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본 결과 익명조건($M=3.58, SD=.19$)과 기명조건($M=3.60, SD=.20$)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7, n.s.$). 평가조건과 상관없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혼입되는 것이기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승인욕구의 개인차를 의미한다는 견해(Reynolds, 198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익명/기명 조건과 모든 참여역할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괴롭힘 피해 및 동조경험의 자기보고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r=.09, p<.05$)이 있었으며 다른 참여역할 보고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명조건보다는 익명조건에서 괴롭힘 피해 및 동조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 것을 의미하나 두 조건 간의 차이가 매우 작아 기명과 익명조건 간의 차이가 실제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익명과 기명(비밀보장)조건 간에 가해 및 피해경험 보고에 있어서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들(Chan et al, 2005; O'Malley et al., 2000)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주변인 역할까지 확대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던 피해 및 동조의 경우 그 작은 차이가 어떠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익명조건의 과잉보고 가능성과 기명조건의 과소보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실시 후 단일문항으로 사후질문을 제시하여 '설문지에 솔직하게 응답

한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는데, 익명조건($M=3.34$, $SD=0.70$)과 기명조건($M=3.20$, $SD=0.68$)간 '솔직성' 평정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92$, n.s.). 요컨대, 익명조건과 기명조건의 차이가 우연에 기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하며,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한 정도에 대한 자기 평정치에서도 익명/기명 실시간 차이가 없었다는 이와 같은 결과들은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식 평가를 익명조건에서 실시해야만 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익명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자기보고식 괴롭힘 참여역할 평가의 대안으로 기명조건(비밀보장)을 고려할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명조건(비밀보장)은 제3의 준거를 사용하여 자기보고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후속 개입이나 개입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명조건에 할당된 연구대상자 중 58명(15%)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인확인정보(즉, 학번)를 기입하지 않고 익명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기명조건에 놓인 일부 학생들이 괴롭힘 참여역할을 보고한 내용이 선생님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기명방식으로 자기보고식 괴롭힘 참여역할을 평가할 경우 개인확인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평가전략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내용이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문지 지시문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설문지 상에 학번을 적게 하였다. 하

지만 검사실시자의 책임 하에 비밀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줄 수 있는 구두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상 같은 학급 내에 있는 학생들도 서로 다른 조건들(익명/기명 실시)에 무선적으로 배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구두설명이 추가로 제공될 수 없었다.

넷째,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서 참조시간 조건은 가해보고($r=.12$, $p<.01$) 및 피해보고($r=.09$, $p<.05$)와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인 반면, 주변인 참여역할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참조시간 조건이 최근 2-3개월 보다는 지난 1년으로 제시되었을 때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참조시간 조건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연구들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참조시간 조건을 연구들 간 통일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이동형, 2014a; Furlong et al, 2010)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의 양('전혀 없다' ~ '11회 이상')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이러한 연속척도 상의 분산이 참조시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나 피해경험 유무를 응답하게 하여 경험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시간의 변화가 괴롭힘 경험 보고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조시간 조건과 주변인 역할보고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점은 주변인 역할을 측정하는 척도의 내용이 보다 일반적인 행동경향을 측정하는 내용의 문항(예: '괴롭힘

상황에 별 관심이 없다)이 다소 포함된 것과 척도 값 또한 5점 Likert 척도이나 구체적인 횟수가 아닌 다소 애매한 표현(‘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괴롭힘 참여역할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관련 편향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개인특성 변인인 적대적 귀인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가해보고 분산의 17%, 다른 참여역할 보고의 경우는 6%에서 9% 사이에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특성 변인이 모든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서 잠재적인 반응편향 요인임을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편향의 가능성은 가해보고의 경우에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특성 변인을 투입한 후 평가조건 변인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가해와 피해보고의 경우 각각 1%의 설명력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주변인 역할의 경우 평가조건 변인의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인특성 변인들은 가해와 피해보고와 같이 직접적인 참여역할 보고와 주변인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 모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편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평가조건 변인들은 주로 가해 및 피해경험 보고에 미미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편향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괴롭힘 참여역할의 평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적대적 귀인 편향이 가해나 피해보고뿐 아니라 모든 괴롭힘 참여역할의 보고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괴롭힘 참여역할을 평가하는 괴롭힘 평

가 실무자나 연구자는 이러한 요인이 자기보고 결과를 편향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경우라면 적대적 귀인편향을 함께 측정하여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당 학생의 적대적 귀인 편향이 실제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것인지 귀인편향에 의해 초래된 반응편향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판정은 외적인 준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별히 괴롭힘 참여역할에 대한 진단적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예: 괴롭힘 가해자, 피해자,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판정) 자기보고식 평가 방법 외의 또래평가 방식 등을 병행하여 적대적 귀인에 의한 잠재적인 반응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은 괴롭힘 참여역할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편향요인이므로, 특히 괴롭힘 참여역할과 다른 사회적으로 민감한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두 변인의 관계가 과잉추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다. van de Mortel(2008)은 자기보고식 도구를 사용한 1만 편 이상의 건강관련 연구를 검토하면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을 고려한 연구는 불과 0.2%에 그쳤으나 이러한 연구들 중 무려 43%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연구결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Saunders(1991)는 폭력 관련행동의 자기보고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게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지나치게 높은 연구대상자를 배제하거나, 통계적으로 이러한 편향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기명조건과 익명조건

간의 괴롭힘 참여역할 경험 보고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익명실시가 명백히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학생이 경험한 괴롭힘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 측정하여 모니터링하는 경우, 괴롭힘 관련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혹은 적절한 외적 준거에 비추어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서 적절한 범위의 비밀보장을 전제한 기명 실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이 보고하는 자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보다 솔직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실시절차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크지는 않지만 참조시간 조건이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의 보고에 편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보다 정밀한 측정을 요하는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의 경우에 참조시간 조건을 통일하여 제시하여 괴롭힘 유형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국내의 각종 척도나 대규모 실태조사에서 참조시간 조건이 통일되지 않고 제시되는 점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측정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식 평가에서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관련 변인들을 일부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가해 및 피해경험 보고뿐 아니라 주변인 행동의 보고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보고식 괴롭힘 참여역할 평가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이

다양한 괴롭힘 참여역할의 자기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익명실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비밀보장이 전제된 기명실시 절차의 적용 근거와 일관성 있는 참조시간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매우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편향요인이 괴롭힘 참여경험의 자기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인 중 측정과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일부에 그친 점은 본 연구의 일반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자기보고 측정치 간의 상관(어떤 경우(특히, 적대적 귀인편향) 구성개념 간의 실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응편향을 나타내는 것인지, 반응편향을 나타낸다면 어느 정도의 분산을 편향으로 보아야 하는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그 해석이 모호한 점은 중요한 제한점이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구성개념 중 일부를 다른 측정방법이나 외적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잠재적 편향의 실제 정도와 방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이러한 외적 지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설계와 목적 상 안고 있는 제한점이다. 즉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기보고식 괴롭힘 평가의 편향요인을 추가로 탐색할 뿐만 아니라 외적 준거를 포함시켜 편향의 정도를 추정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moe.go.kr> 에서 2015년 5월 20일 자료 얻음.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 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현주 (2003). 집단 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103-118.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29(5), 79-96.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신유림 (2006).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차이: 자기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41-149.
- 심희옥 (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 45-63.
- 이동형 (2014a). 학교 괴롭힘의 개념화와 자기 보고식 평가: 현 쟁점 및 개선 방안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737-763.
- 이동형 (2014b). 학교폭력의 평가와 진단.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편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원인진단과 대응” 중 10장. 서울: 학지사.
- 이승연 (2013). 또래괴롭힘: 주변인 개입과 사회적 맥락 변화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59-81.
- 이은정 (2015). 부모애착이 학령 후기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도덕추론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09.
- 이지현 (200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김인경, 김은정 (2001). 집단 따돌림의 측정방법에 따른 행동평가의 차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45-14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재)푸른나무 청재단.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아동의 가해 및 피해경험 측정방법 비교를 통한 심리적 특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1(3), 339-358.
- Anastasi, A., & Urbina, S. (1997). *Psychological testing* (7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Bell, K. M., & Naugle, A. E. (2007).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on students' self-reporting of partner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Violence and Victims*, 22(2), 243-256.
- Blake, B. F., Valdiserri, J., Neuendorf, K. A., & Nemeth, J. (2006). Validity of the SDS-17 measure of social desirability in the American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625-1636.
- Bovaird, J. A. (2010). Scales and surveys: Some problems with measuring bullying behavior. In S. R. Jimerson, S. M. Swearer, & D. L. Espelage (Eds.),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277-292). New York, NY: Routledge.
- Chan, H. F. J., Myron, R., & Crawshaw, M. (2005). The efficacy of non-anonymous measures of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 443-458.
- Cornell, D. G. & Cole, J. C. M. (2012). Assessment of bullying. In S. R. Jimerson, A. B. Nickerson, M. J. May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pp. 289-303). New York, NY: Routledge.
- Cornell, D. G., Sheras, P. L. & Cole, J. C. (2006). Assessment of bullying. In S. R. Jimerson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pp.587-602). Mahwah, NJ: Erlbaum.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367-380.
- Furlong, M. J., Sharkey, J. D., Felix, E. D., Tanigawa, D., & Green, J. G. (2010). Bullying assessment: A call for increased precision of self-reporting procedures. In S. R. Jimerson, S. M. Swearer, & D. L. Espelage (Eds.),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329-345). New York, NY: Routledge.
- Gini, G., Pozzoli, T., Horghe,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617-638.
- Greif, J. L., & Furlong, M. J. (2006). The assessment of school bullying: Using theory to inform practice. *Journal of School Violence*, 5, 33-50.
- Morrison, G., & Furlong, M. J. (2002, June). *Understanding the turning points in students' school discipline histories*. Paper presented at Safe Schools for the 21st Century, National Conference of the Hamilton Fish Institute, Monterey, CA.
- Nederhof, A. J. (1985). Methods of coping with social desirability bia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263-8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Olweus, D. (2007). *The Olweus Bullying Questionnaire*. Center City, MN: Hazelden.
- Olweus, D. (2010).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bullying: Some critical issues. In S. R. Jimerson, S. M. Swearer, & D. L. Espelage (Eds.),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9-34). New York, NY: Routledge.
- O'Malley, P. M., Johnston, L. D., Bachman, J. G., & Schulenberg, J. E. (2000). A comparison of confidential versus anonymous survey procedures: Effects on reporting of drug use and related attitudes and beliefs in a national study of students. *Journal of Drug Issues, 30*, 35-54.
- Quiggle, N.,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Reynolds, W. M. (2003). *Reynolds Bully Victimization Scales*.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n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aunders, D. G. (1991). Procedures for adjusting self-reports of violence for social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36-344.
- Smith, P. K., Cowie, H., Olafsson, R. F., & Liefoghe, A. P. D. (2002). Definitions of bullying: A comparison of terms used, and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fourteen-country international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73*, 1119-1133.
- Solberg, M., & Olweus, D. (2003). Prevalence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9*, 239-268.
- Sto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97). Intimate violence and social desirability: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275-290.
- Sveinsson, A. V., & Morris, R. J. (200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ith school bullies. In J. E. Zins, M. J. Elias, & C. A. Maher (Eds.),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harassment: A handbook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9-26). New York, NY: Routledge.
- Swearer, S. M., Espelage, D. L., & Napolitano, S. A. (2011).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동형, 이승연, 신현숙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9에 출판).
- van de Mortel, T. F. (2008). Faking it: Social

최문영 · 이동형 /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의 잠재적 편향요인: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을 중심으로

desirability response bias in self-report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4),
40-48.

원 고 접 수 일 : 2015. 06.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8.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5. 08. 21.

Potential Biasing Factors of Self-Reports of Participant Roles in School Bullying: Respondent- and Context-related Variables

Moonyoung Choi

Donghyu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spite of its popularity, the self-report assessment of school bullying has been known susceptible to various biasing factors including respon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variables. This study manipulated contextual variables (anonymous vs. confidential administration and time frames of reference) through written test instructions for 708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had them complete the self-report assessment instrument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such as hostile attributional bias and social desirability, and participant roles in school bullying (bully, victim, follower, outsider, and defen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se respondent- and context-related variables function as potential biasing factors in self-reports of participant roles in school bullying.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respondent-related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lf-reports of all participant roles, while contextual variables were correlated with self-reports of only a few of the participant roles.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lso showed that respondent-related variables significantly accounted for the variance in self-reports of all participant roles,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gender, while contextual variables contributed only a small amount to the variance of self-report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with no contribution to self-reports of bystander roles. These findings wer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response biases in self-report assessment of bullying.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self-report assessment practice of school bullying we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provided.

Key words : bullying, participant roles, self-report assessment, response bias